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윤수*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6. 17(토) ~ 7. 1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필리핀대학마닐라 소속 어학원 Times SLC은 필리핀 수빅에 위치하며 클락 공항에서 차로 1시간정도 걸립니다. 또한, 수빅의 변화가로 나갈 땐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변화가 쪽에 가서야만 마트와 식당이 존재합니다. 어학원 주변엔 마트가 없습니다. 어학원 기숙사와 수업 교실이 같은 건물에 있고 4주 동안 그 건물만 이용합니다. 쉬는 시간에 계단을 통해 기숙사 방과 교실을 1분 만에 이동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건물 앞에 실외 수영장이 있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영하며 놀 수 있습니다. 급식실도 바로 옆에 있어서 이동이 편합니다. 교실마다 모터 에어컨이 존재하여 덥지 않았고, 추울 때도 있었습니다. 약은 항상 오피스에서 얻으실 수 있고 만약 병원을 가게 된다면 최소 5백 페소의 많은 돈이 소비됩니다. 어학원 소속 선생님들은 모두 밝습니다. 먼저 인사를 해주시고 친근하게 다가오십니다. 누구든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고 계십니다. 한국 직원 분들도 계셔서 적응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p>
수업	<p>어학원에 가면 바로 수준 테스트를 합니다. 듣기, 쓰기, 문법, 말하기 등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3시간 동안 풀어야 합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수준별로 분반이 되고 그룹이 정해집니다. 한 그룹 당 학생 4~5명이고 4주 동안 그들과 그룹별 수업을 함께합니다. 하루에 그룹별 수업 4시간과 일대일 수업 4시간을 합니다. 7개의 수업이 존재하고, 수업마다 선생님이 다릅니다. 수업 책은 총 7개입니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책 레벨이 다릅니다. 그룹별 수업 첫 번째, 영어로 된 영상을 보며 토론 하는 수업입니다. 광고,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영화 예고편 등을 보여줍니다. 이 수업을 통해 각 그룹 당 광고 2개와 뮤직비디오 1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룹별 수업 두 번째, 지문을 읽고 단어와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그룹별 수업 세 번째, 토익 스피킹 수업입니다. 토익 스피킹 전략에 대해 배</p>

	<p>우고 Part가 끝날 때마다 시험을 봅니다. 이 수업은 하루에 2시간씩 진행합니다. 일대일 수업에선 단어 배우기, 지문 읽고 토론하기 등을 합니다.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대해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문이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므로 자신의 가치관, 생활, 경험 등을 대화합니다. 일대일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업 첫 주에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의 과제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토익 스피킹 녹음하기, 지문 읽고 문제 풀어오기, 문장 만들어오기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이후에 복습과 예습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수업 시간에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에 파이널 테스트를 봅니다. 처음에 봤던 테스트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토익스피킹 시험도 봅니다. 이 시험을 토대로 마지막 등수가 매겨지고 졸업식 때 자신의 등수를 알 수 있습니다.</p>
Activity	<p>Activity엔 수빅 투어, 리조트 수영장 방문, 고아원 방문, 필리핀대학 마닐라 방문, 요트타기, 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빅 투어에선 1명의 선생님과 5명의 학생이 조를 이뤄서 수빅을 돌아다닙니다. 가장 처음 가진 Activity이므로 수빅의 변화가를 첫 방문하게 됩니다. 이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첫 환전을 합니다. 하루 종일 걸으므로 힘듭니다. 또한 밥과 교통비 모두 각자 사비를 씁니다. 두 번째로, 리조트 수영장에 가시게 됩니다. 그 수영장은 예쁘고 앞에 바다도 있습니다. 꼭 수영복을 입으셔야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영장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동안 할 것이 없어 매우 심심합니다. 점심밥 혹은 음료 식비는 개인 부담이고 양에 비해 비쌉니다. 세 번째로, 고아원에 방문합니다. 고아원에 방문하기 전, 기부를 위해 돈을 걷어 선물을 준비합니다. 고아원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로 나뉜 방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놀아줍니다. 후에 다 함께 모여 게임을 하고 간식을 나눠줍니다. 네 번째로, 필리핀대학 마닐라를 방문합니다. 수빅에서 마닐라까지 차로 3~4시간 걸립니다. 차가 막힌다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오전엔 UP의 학생들과 짝을 이뤄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10명씩 그룹을 만들어 게임을 진행합니다. 오후엔 소수의 UP 학생들과 마닐라에 있는 박물관도 방문합니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아시아에서 7번째로 큰 백화점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 함께 요트를 탑니다. 요트를 타고 바닷가 한 가운데로 갑니다. 구멍조끼를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놀입니다. 꼭 수영복을 입지 않아도 되고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팀을 나누어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한 팀에는 소수의 선생님과 다수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Activity는 보통 주말에 하며 Activity가 끝나면 자유 시간을 가집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6~7월의 필리핀 날씨는 우기였습니다. 6월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햇빛이 짙었지만 7월엔 거의 매일 비가 왔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4주 동안 기온은 한국과 비슷했지만 습기가 엄청 심했고 햇빛이 엄청 짙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실내의 기온과 실외의 기온이 차이가 심해서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다면 피부가 엄청 탈 수 있습니다.</p>
안전	<p>어학원 건물 입구에서 가드 분들이 밤낮으로 항상 지키고 있으므로 매우 안전합니다. 밤에 밖에서 혼자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안전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수업 교실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존재합니다. 3인 1실입니다. 침대 3개, 책상 3개, 장롱 3개와 서랍 3개가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깔끔한 편입니다. 화장실 시설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휴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유무는 방마다 다릅니다. 방마다 모터 에어컨이 하나씩 존재해서 켜두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도마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빨래는 월~토 중 정해진 날이 있고, 2일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분께서 직접 해주시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매일 밤마다 10시에 점호가 있습니다. 다음 날 수업이 없다면 12시에 점호를 합니다. 그 전에 꼭 기숙사에 들어와야 합니다. 기숙사에선 술 반입 금지입니다. 올해부터 방마다 쓸 수 있던 와이파이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 밖에 있는 복도에 나가야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데이터를 사서 썼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급식은 거의 한식 위주로 나옵니다. 보통 밥, 김치, 메인 반찬, 국이 나옵니다. 아침엔 빵과 과일이 자주 나오고 점심이 가장 맛있습니다. 평일엔 수업 시간 이후에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녁밥을 밖에 나가 외부 식당에서 자주 먹습니다. 평일 아침밥 시간은 7시부터 8시까지이고, 주말 아침밥 시간은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점심밥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동일합니다. 저녁밥 시간도 5시부터 6시까지로 동일합니다.</p>

교통	수빅의 변화가로 나가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6명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FB가 있습니다. 버스처럼 노선이 정해져있고,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이 승차합니다. 한 번 탈 때 13페소입니다. 두 번째로, 택시입니다. 최대 6~7명까지 가능하고 최소 120페소입니다. 콜택시는 200페소 정도 합니다. 변화가에서 어학원으로 돌아올 때 택시 승강장으로 가면 120페소에 탈 수 있습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사비	112,230원 (100달러)	환전
사비	350,000원	ATM 출금
합계	452,23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p>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최소 400달러를 환전해 가져야 합니다. 한국 돈으로 가져가 시면 환전 못해요. 초반에 막 쓰면 나중에 기념품 살 때 돈이 부족해서 ATM기에서 출금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가 거의 5천원입니다. 긴 바지 꼭 챙기세요. 긴 바지 안 들고 갔다가 후회 엄청 했습니다. 실내 날씨가 실외 날씨랑 차이가 심해서 추울 때도 있습니다. 남방도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수업 할 땐 계속 앉아 있어야 해서 편한 복장이 제일 좋습니다. 생활용품은 필리핀에서 다 팔지만 돈을 아끼시려면 다 챙겨 가세요. 그리고 4주 동안 다 쓰신 다음에 오실 때 버리고 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수영복은 필수입니다 ! 꼭 챙기세요.</p>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아는 사람 없이 혼자 가는 것이라서 처음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4주 동안 어학원에서 지내면서 다른 학생 분들과 친해졌고, 특히 같이 방을 쓴 룸메이트들과 무척이나 친해졌습니다. 29명의 학생들은 다양한 학과를 가졌고,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해보니 너무 즐거웠습니다.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에서 얻은 것 중 가장 소중하고 뜻 깊은 것은 같이 다녀온 분들과의 만남과 추억입니다. 모난 사람 없이 모두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다 같이 많은 활동을 하며 행복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다른 교내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어졌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도 방문하고 싶어졌습니다. 어학원에서 만난 선생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낮가리는 성격 탓에 먼저 다가가지 못한 저에게 많은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첫 수업 때, 형편없는 영어 듣기 실력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제게 천천히 설명해주시면서 이해시켜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영어 회화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었고 영어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첫 수업 때는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울해 했었지만 마지막 수업 때는 선생님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를 가기 전 저의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저의 토익 점수가 너무 낮아 창피했고 영어 회화 수업 땐 자신감이 부족하여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영어 회화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꼭 극복해서 훌륭한 영어 실력을 가질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수빅투어</p>	<p>회식</p>
	
<p>리조트 수영장</p>	<p>고아원</p>
	
<p>자유 활동 - 페리 세일링</p>	<p>클락 공항 출국 전</p>